**구시로맥**

이 맥(貘)은 초식 대형 포유류로 돼지를 닮았지만, 길고 가는 코를 가지고 있어 이 코로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맥의 현존 종으로는 4종이 알려져 있으며, 이들은 남아메리카, 중앙아메리카 및 동남아시아에 서식하고 있는데 모두 멸종 위기종입니다. 수백만 년 전에는 현재는 멸종되어버린 몇 종의 맥이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을 돌아다녔습니다.

이 화석은 새롭게 발견된 종인 구시로맥(학명: Plesiocolopirus kushiroensis)의 위턱입니다.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으로 미루어볼 때 구시로맥은 약 3,800만 년 전에 살았을 것이라고 고생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.

**빙기의 이동**

구시로맥의 어금니 화석은 북아메리카 맥의 어금니 화석과 비슷합니다. 이 점에서 고생물학자들은 구시로맥이 북아메리카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홋카이도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. 최종빙기 동안 해수면은 현재보다 상당히 낮았는데, 이때 홋카이도는 사할린섬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.

**희귀한 발견**

이 화석이 희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이 화석이 구시로맥의 화석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. 또 다른 이유는 이 크기의 화석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. 이 화석은 길이 10cm, 폭 9cm로 앞어금니와 어금니를 포함한 9개의 이빨이 남아있습니다. 이 화석은 1968년에 구시로의 동쪽 도마치세에 있는 절벽 근처에서 중학생이 발견한 것입니다.